



민주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안정치연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당권파가 결국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 일본어판 보도 무엇이 한국 위하는 일인가”

靑, “일본인들, 일어 번역 기사 보고 한국 여론 이해

靑瓦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최근 한일 갈등 관련 일본어판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열거하며 “이것이 진정한 우리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싶다”며 “한국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는 이 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기업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지난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 요즘 한국 기업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일본어판에서 제공한 점을 문제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바꿔 보도한 점을 문제삼았다.

지난 15일 ‘국제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라는 기사를 ‘해결책 제시없이 반일감정 부추긴 청와대’로 제목을 바꿔 일본어판에서 제공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중앙일보는 ‘낙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은 ‘우리는 얼마나 웅충한가’라는 제목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와 조선일보의 ‘외국의 장모 나옴’과 문 대통령 발언 ‘다음날 외교 사라진 한국’과 같은 기사

가 2·3위에 랭크돼 있다”며 “그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가 일본어로 번역된 것으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7월 1일 시작된 일본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며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신중한 한일 합의를 내리고 있다. 기업은 정부와 소통을 통해 어떤 여파가 있을지 단기적 대책부터 근본적 대책까지 논의에 논의의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 사안을 우려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인한 한국에서의 여러 여파들이 작지 않다”며 “그리고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 것인지 힘을 모아야 하는 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중요함은 당연히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일본에도 한국의 여론이 정확히 전달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혹은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내분’ 평화당, 분당 가시화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등 당권파-박지원·유성엽 등 비당권파 간 입장차
비당권파 의원 10명 ‘대안정치 연대’ 결성 제3차대 창당 나서기로
정동영, 특정한 당 흔들기에 불만... 야권발 정계개편 가속화 ‘주목’

민주당 내분으로 야권 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의원총회를 열었다. 내용을 봉합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유성엽 원내대표와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10명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를 결성하고 제3차대 창당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대안 세력들을 더 묶어가면서 제3차대 신당을 한해서 꾸려야 할 것”이라며 “기득권 양당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제3차대 신당을 발족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즉시 탈당을 주장했지만 기득권 당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아 탈당 논의는 일단 보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창당을 위한 1단계는 매듭지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법적으로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함께 논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특정인의 당 흔들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밤 모처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을 경청했다. 모두 일리있고 이해되는 이야기였다”면서 “당이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다만 한 가지 유감은 한 원로 정치인의 역할”이러

서 “뒤에서 들추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행태는 당을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고 일갈했다.

정 대표가 말한 ‘원로 정치인’은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원로 정치인)에게선 정권과 공천권을 내놔라, 당 대표직 내놔라, 지난 1년 동안 그는 정동영 대표를 대표로 인정할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를 위한 불출마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정 대표는 “어제 가장 많은 얘기는 모두 내려놓자는 것이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강조하며 “기득권 내려놓자, 좋다. 그런데 입으로만 외치는 기득권 포기 아니라 의원 불출마를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새 정치를 얘기해야 맞다”고 꼬집었다. /고민형 기자

도의회 2기 윤리특별위원장에 문승우 의원

부위원장에 진형석 의원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 부위원장에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57조’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의원의 징계, 자격 및 윤리심사에 목적이 있다.

문 위원장은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의원의 윤리·청렴의무에 대해 동료의원과 함께 연찬회 자리를 자주 갖겠다”며 “이를 통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문승우 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군산시 체육회 부회장,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29일 지방의회 의원 청렴교육 등을 포함한 연찬회를 시작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정진 기자

문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日 수출 규제 초당적 합의문 채택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야 5당 대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마침 이날은 일본 정부가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으로 최종 제시한 날로,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초당적 협의를 일궈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공감대로 형성된 자리인 만큼 적어도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간 만남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으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간의 회동 사례를 비춰볼 때 합의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문 대통령이 여야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 여야 대표 회동을 제의했지만 회동의 형식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만남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회동인 만큼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대응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매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소재 부품과 장비 산업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200억원 이상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해 정치관계에도 단합된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앞서 공식 회의에서 제안해 온 대일특사 파견과 민관 협의체 등 두루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